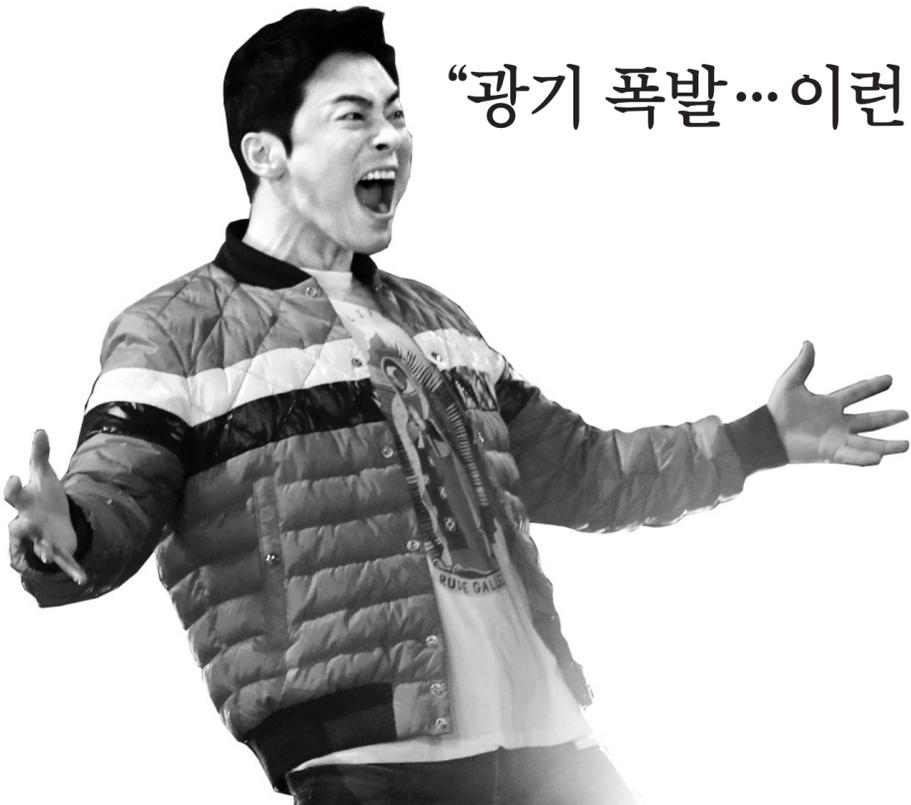


# “광기 폭발...이런 악역 처음이야”



영화 ‘뺑반’ 통제불능 스피드광 정재철 역 조정석

원하는 게 있으면 불붙 안 가리고 다 뒤집어 엎어 버린다. 도로에서 자신이 모는 고급 차와 똑같은 차를 맞닥뜨리자, 기분 나쁘다며 그 자리에서 제 차를 박살 낸다. 악인은 악인인데, 지극히 유아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다. 이달 30일 개봉하는 영화 ‘뺑반’에서 조정석(39)이 연기한 통제 불능의 스피드광 정재철 캐릭터다.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조정석은 “제 실제 성격과는 너무 다른 인물이라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웃었다.

영화 ‘미약왕’ (2018), ‘형’ (2016), 드라마 ‘투깝스’ (2017), ‘질투의 화신’ (2016) 등에서 주로 유쾌하고 따뜻한 역할을 한 조정석은 생애 첫 악역에도 도전했다.

극 중 재철은 한국 최초 포뮬러 원(F1) 레이서 출신 성공한 사업가 포뮬러부터 탈세, 횡령, 뇌물 상납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뺑반’ (한준희 감독)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재철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뺑소니전담반의 활약을 그린다.

조정석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과는 결이 달라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도전과 모험은 배우의 숙명으로, 잘하는 역할만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재철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나르시시즘(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일)에 빠져있다”며 “자신이 일궈내는 성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가끔 광기를 폭발하는 재철은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말을 더듬고 한쪽 눈을 깜박인다. 조정석은 “자칫하면 감정과 대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떠올렸다.

조정석은 고난도 카체이싱 액션도 소화했다. 극 중 운전 장면의 90%는 그가 직접 연기했다. 특히 재철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아 운전과 연기를

### F1 레이서 출신 성공한 사업가 탈세·횡령·뇌물상납 등 비리 인물 고난도 카체이싱 직접 90% 소화 차기작은 SBS 드라마 ‘녹두꽃’

동시에 하느라 애를 먹었다. “마치 만화처럼 자동차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달리는 제 차와 카메라 촬영차가 같은 속도로 붙어서 촬영해야 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위험했죠. ‘칼치기’ (차선 급변경)를 하는 장면은 시속 100km로 달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연출부와 제작부가 사전 준비를 철저해서 위험한 장면을 안전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카체이싱 장면을 위해 F1보다 낮은 단계인 포뮬러 스리(F3) 머신으로 실제 주행연습도 했다. “F3 머신을 모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늑다시피 운전석에 앉아 한발로 조절하고, 오로지 감각에 의존해 운전해야 합니다. 처음 타는 분들은 대부분 시동을 꺼뜨리는데, 저는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죠. 전문가들이 저더러 ‘진짜 잘 탄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셈이죠. 그래도 속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하.”

조정석은 형사 역을 맡은 류준열, 공효진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조정석은 류준열과 함께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류준열의 인기를 실감했다고 한다.

“요즘 류준열씨가 대세잖아요. 지난번 영화 ‘형’ 개봉 당시 도경수 씨랑 무대 인사를 다녔을 때 느낀 에너지를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류준열씨는 또래 배우 중 가장 열심히 연기하고, 도전이나 모험을 계속 시도하는 친구”라며 치켜세웠다.

조정석은 지난해 10월 가수 거미와 연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연애할 때부터 (성대한 결혼식이 아니라) 양가 부모 모시고 연약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바빠서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조정석은 ‘뺑반’ 이후에는 SBS TV 드라마 ‘녹두꽃’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때 농민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연합뉴스

## 미국판 ‘복면가왕’ 대박

### 매회 1천만명 시청...한국 콘텐츠 수출 성공사례

역시 잘 뽑은 기획 하나는 두고두고 흥자 노릇을 한다. 그중 하나인 MBC TV 간판 음악 예능 ‘복면가왕’도 미국에 수출돼 현지에서도 대히트 중이라는 소식이 연일 전해진다.

27일 미국 폭스와 MBC에 따르면 ‘미국판 복면가왕’인 ‘더 마스크드 싱어’ (The Masked Singer)는 매회 1천만명 이상의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지난 2일 방송한 1회는 분방송을 936만8000명(이하 18~49세 시청률 3.0%)이 봤고, 사흘 후에는 총 1227만 3000명(3.9%)이, 7일 후에는 1296만 8000명(4.2%)이 봤다.

미국에서는 주로 시청률보다는 시청자 수로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한다. 보통 1천만명을 넘으면 ‘대박’으로 간주한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 있는 ‘빅뱅이론’ 시즌12의 시청률이 1.0%, 시청자

수가 691만명인 걸 고려하면 ‘더 마스크드 싱어’의 성과를 추측해볼 수 있다.

‘더 마스크드 싱어’는 미국 방송사와 한국 방송사 간 첫 ‘직거래’의 결과물인 점으로도 주목받는다.

그동안 미국에 진출한 한국 포맷은 총 3편, ‘복면가왕’과 tvN ‘꽃보다 할배’, 드라마 ‘굿닥터’다. ‘꽃보다 할배’는 스포츠계라는 에이전트와 NBC 간 계약이었고 ‘굿닥터’는 대니얼 대의 제작사와 ABC 간 계약이었는데 ‘복면가왕’은 MBC와 폭스의 직접 계약이다.

MBC 측은 “그만큼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은 케이스”라고 자평했다.

‘복면가왕’은 판권 판매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포함 총 20여 개국에 판매됐다.

/연합뉴스

## 이덕화, 유튜브 1인 방송 도전



배우 이덕화(67)가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로 변신했다.

소속사 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트는 이덕화가 최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덕화TV’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채널에서 이덕화는 자신의 혼밥 도전기를 ‘덕화의 혼밥’이라는 콘텐츠

로 담아내고, ‘축구장 핵인싸’에서는 축구 실력을 뽐낸다. 이덕화는 “지난 50년간 드라마, 영화, 쇼 거가다 예능까지 두루 경험해봤지만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은 색다른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덕화의 1인 크리에이터 도전기는 내달 방송되는 KBS 예능프로그램 ‘덕화TV’에서 확인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니우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차중우돌 만국 유람기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순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특선영화 기술자들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이의 독립 영웅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TV는 사랑을 싣고(재)	05 불뺑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집 다크멘터리(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겨울엔 내맘 트레킹 2부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안나푸르나가 품은 마을을 걷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겨울에는 울릉도 2부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벼랑 끝 세상일지라도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	23:55 엄마를 찾지마(재)
<두부 밀피유와 토마토스 생선절임>	17:15 마사와 곰	24:50 다크 시네마 <피의 연대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 36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48년생 지금 발본색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60년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다. 72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84년생 암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4, 77</p>	<p><b>午</b> 42년생 지금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목적 대상이다. 54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66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78년생 우연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90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행운의 숫자 : 34, 83</p>
<p><b>丑</b> 37년생 뽀뽀의 소식을 듣거나 의외의 인물을 만날 수 있다. 49년생 가장 용인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연이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73년생 존중을 아껴 써도 하루해가 너무 짧다. 85년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6, 98</p>	<p><b>未</b> 43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55년생 유익한 측면으로 도모해야 한다. 67년생 진중하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79년생 체면 차리려다가 심하게 꼬이는 수가 있다. 91년생 점점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17, 66</p>
<p><b>寅</b> 38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양상이다. 50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62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 74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86년생 느긋 그대로 인식해야 착오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20</p>	<p><b>申</b> 44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56년생 선전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과 관계 하리라. 68년생 단안을 내릴 단계에 와 있다. 80년생 은원을 차치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 해야겠다. 92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02, 19</p>
<p><b>卯</b> 39년생 진전이 있다. 51년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63년생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75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87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89, 04</p>	<p><b>酉</b> 45년생 객관적인 자제만이 활로를 열어 주게 된다. 57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69년생 수단의 활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81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인다. 93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32</p>
<p><b>辰</b> 40년생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라. 52년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그만이다. 64년생 열조자는 보이니 진행은 지연 된다. 76년생 마음먹었다면 그대로 조처하는 것이 맞다. 88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28</p>	<p><b>戌</b> 34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 될 것이니라. 46년생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면 되느니라. 58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끌 것이다. 70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82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리라. 행운의 숫자 : 58, 64</p>
<p><b>巳</b> 41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 53년생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왔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리라. 65년생 이득이 발생할 것이니 즉시 이행함이 유익하다. 77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 한다. 89년생 경중을 따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7, 89</p>	<p><b>亥</b> 35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47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한다면 수월하게 극복한다. 59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잡지 말자. 71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83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걸림돌부터 치워라. 행운의 숫자 : 09, 15</p>